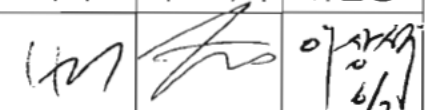


단기 선교팀 신청서 ③

출력날짜 : 2019-05-26

※ Team No : 2019-025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팀명 : 스라랑카4팀)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2. 선교국가 : 스리랑카		3. 사역지 : 웰리마다		4. 공 항 :		
5. 사역기간 : 년 8월 10일 (월) ~ 년 8월 24일 (월)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시무 장로	이상배	LEESANGBAE	12		X X	91-179				
2	총무	시무 장로	유종석	YOOJONGSEOK	4		X X	89-746				
3	서기	시무사임 장로	박우현	PARKWOOHYUM	4		X X	85-94				
4	회계	시무 장로	양효민	YUNGHYOMIN	6		X X	84-1386				
5	의료	휴직 장로	이창희	LEECHANGHEE	1		X X	86-24				
6	찬양	시무 장로	신광철	SHINKWANGCHU	4		X X	83-73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5/26 홍수만	5/26 정재명

선교 소감문

스리랑카 4팀 (이상배 장로)

제가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3번 다녀왔는데, 스리랑카는 7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금번 단기선교는 특별히 충현교회 협력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의 상황 및 그분들이 사역하는 현지교회를 둘러보고 축호전도로 협력하는 사역이었다.

특별히 스리랑카 북쪽 와우니아 지역은 김제용 선교사님이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스리랑카 영혼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현지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이 그 사랑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선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영혼 사랑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수한 천국 십자가복음을 부어잡고 스리랑카 영혼들에게 부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물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십 여년을 넘게 복음의 씨를 뿌린 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확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와우니아 사역지를 이어받으시려고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기에 이 또한 주님의 예비하심이며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 선교사님 부부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이자 전권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한 장애인 성도 가정을 방문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린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장애인은 가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로지 말씀만 붙드는 모습에 순수함을 느꼈으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곤 했는데 힘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영적 맹인들이 즐비한 캄캄한 땅 스리랑카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우상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교 기간 내내 함께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소감문

(팀명: 스리랑카 4팀

성명: 유 종 석 장로)

스리랑카는 북부와 동부 지역의 타밀족과 서부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신할린족으로 26년간의 종족 간의 내전으로 지금도 언어가 다른 타밀족은 타밀어를 신할린족은 신할린어를 사용하므로 우리 팀은 통역이 없이는 한마디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타밀족이 거주하는 와우니아 지역에 2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제용(78세) 은퇴 목사님을 만났다.

그는 내년 4월경 귀국 계획을 밝히시면서 그동안 와우니아 지역의 사역에 대한 그간의 많은 사역 간증을 들려주셨다. 목사님의 철저한 현지화 사역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그곳 타밀족과의 사역은 사도바울의 사도행전 적 사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나는 가슴이 뻥 뚫림 같아 아려왔다.

목사님께서는 하루에도 30-40키로를 고산지대(차밭에서 일하는 고산 타밀족)를걸어서 전도사역을 하시면서 하루해가 저물면 현지인 거주지역 집에서 들어가 가족에게 말씀 전하며 숙식을 같이하며 현지 생활 용어를 쓰며 사역하셨다는 간증 나는 지금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이러한 철저한 현지 사역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했다. 와우니아 지역 김제용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 중(지금까지 그곳에 72개 교회를 개척함) 4개의 교회를 방문하였다.

교회 지붕과 대문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으며 표시되어 있었다. 타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힌두교인 지역이라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김제용 선교사님께서서는 그곳에 몇 가정을 전도한 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 수가 증가하면 교회를 건축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 전 온 성도와 선교사님께서는 건축에 대한 기도로 응답을 받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이 귀하므로 우물을 한국 후원자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교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곳의 성도 수가 부흥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짐을 보았다.

그곳은 광야였으며 그 지역을 인계받을 김영운, 강기엽 선교사 부부에게 사도바울과 같은 사도행전 적 철저한 현지화 사역자가 되어 달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김제용 선교사님에게도 이들 부부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타밀 민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 감 문

팀명 : 스리랑카 4팀

성명 : 박 우 현

스리랑카선교는 처음이었다. 밤 늦은 시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협력 선교사인 강기엽선교사 부부와 사거리 형제가(신학생) 반가이 맞이하고 캔디라는 도시의 숙소까지 동행해 주었다. 늦은 시간 숙소에는 윤해균협력선교사 부부가 반가이 맞이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부터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주일이라 협력선교사인 윤해균 선교사와 주일 예배를 현지 한인 교회에 출석하여 우리팀원들 전부가 예배중 특송을 하였으며 참여한 적은 수의 인원이었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불교가 국가 종교인 나라라 가는 곳마다 거대한 불상들의 우상들로 이곳 저곳에 세워져 있었다.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우상들로 가득찬 도시와 지역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있었다. 무엇 보다도 중보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첫 본격적인 사역지인 웰리마다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이곳은 가미니 목사가 집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차로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가미니 목사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깊은 여역인 대화와 현재 가미니 목사의 사역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집에서는 아직은 집이 완성되지 않아 가정예배만 드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음날 달동네라고 하는 언덕의 빈민에 가까운 곳에 사역을 가미니 목사와함께 방문하여 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준비한 찬양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서 조티팔라라는 장애가 있는 형제의집을 심방하여 팔 다리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형제와 노년의 어머니의 믿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 형제의 장애가 나아지기를 기도하였다. 안타까움 속에 헤어지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천국의 더욱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왔다.

이제 다음 사역지인 와우니아로 이동을 하였다(윤해균협력선교사 동행). 꼬박 하루가 걸려(10시간 이동). 타밀족이 사는 곳인 와우니아에 늦은 시간 도착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김용제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강기엽 김영운협력선교사에게 그가 30여년간 개척해 놓은 사역지를 인계하고 그는 은퇴하고 내년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되어있었다. 참으로 그 선교사의 교회 개척 사역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그 선교사를 통하여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였는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제 강기엽선교사와 남편 김영운선교사의 다음 사역이 기대가 되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분이 개척해 놓은 4곳의 교회들을 탐방하며 둘러보며 현지 교회들의 처한 상황들을 청취할 때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땅 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또 다시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끝.

♣ 소 감 문 ♣

팀명 : 스리랑카 4팀

성명 : 양효민 장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로 6명을 스리랑카 선교팀으로 세워주시고 3개월동안 훈련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7일 저희들은 파송예배를 드리고 6시경 교회에서 출발하여 방콕을 경유한 후 18일 새벽 스리랑카 캔디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으며, 곧바로 도착예배를 드리고 여정을 풀었습니다.

둘째날은 주일이라 사역을 하지 않고 현지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셋째날 일찍 웰리마다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녁 때 가미니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정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불교가 왕성한 지역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워 보였고, 넷째날은 지역에 산재해있는 가정과 사역지들을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섯째날은 북부에 위치한 와우니아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데 도로사정이 안좋아 하루 종일 걸렸으며, 저녁때 도착하여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스리랑카 내전에서 패한 타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모든 형편이 중남부에 있는 싱할라족에 비해 열악한 상태였으나 선교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날은 와우니아지역에 산재해있는 사역교회들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는 외국인의 직접 전도를 금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선교지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소감문

스리랑카 4팀(장로팀) 이창희 장로

- 0 스리랑카 장로4팀은 2019. 8.17(토) ~ 8. 24(토)/ 7박8일로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 0 아직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장로 휴직기간이라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았으나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 0 장로팀이기 때문에 일반팀보다 더 모범되게 팀훈련과 현지인 전도훈련, 언어연습 등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 0 그러나 팀 구성 결정 후 4월 부활절 때 스리랑카에서 이슬람과격단체들이 기독교 예배처소 등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76명의 사망하고 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팀은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의 결정대로 선교을 가게 되었습니다.
- 0 스리랑카에는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협력선교사로 강기엽, 김영운 선교사 부부, 윤해균, 임희순 선교사 부부와 현지인 협력 선교사로 외선부 출신 가미니 선교사가 있습니다.
- 0 이분들이 파송된 지역들이 스리랑카 캔디, 웰리마다, 바브니아(아우니아) 중부 남부 북부로 광범위하게 사역지가 분포되어 있어 1,000km의 장거리의 선교일정을 주님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주셨습니다.
- 0 첫날 사역은 주일이어서 윤해균선교사가 협력하는 캔디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목사님은 설교말씀 중에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사건으로 한국에서 예정되었던 단교선교팀들이 모두 취소되고 앞으로도 방문계획이 없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충현교회 선교팀 3팀(전주에 2팀이 선교사역을 함)이 와서 함께 선교사역을 해 주는데 대해 충현교회에 감사함을 전하고 큰힘과 위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 0 우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방에 복음전파하는 일에 더욱 더 기도로 힘써야 하며, 이곳의 어려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0 스리랑카 캔디지역, 웰리마다지역은 불교중심 지역이어서 선교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선교활동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 0 웰리마다 지역에서는 빈민촌 어린이사역과 축호전도 위주로 사역을 하였고, 빈민촌 어린이 지역에서 다함께 찬송과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곳이 생겼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 0 북쪽의 바브니아(아우니아)지역은 스리랑카 소수민족 타밀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27년간 신 할리족과 내전을 겪어 그 휴유증으로 매우 핍박을 받고,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 0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 60~70년대 복음의 확장기와 같이 복음의 씨앗 뿌리면 열매가 맺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 0 이곳에는 20여년동안 그리스도 삶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전파 하시는 김제용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개척한 교회를 탐방하고 함께 기도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포함하여 20여개교회를 관리하고 계셨는데 80세의 고령으로 내년에는 귀국하게 되어 우리교회 파송선교사 강기엽, 김영운 선교사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 0 그 지역은 물도 좋지 않고 매우 낙후되어 대부분의 선교사가 수도 콜롬보와 캔디지역에 집중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선교사님이 외롭게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사역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장로팀원 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 0 선교사님 말씀 중에 본인이 막대사탕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을 사먹고 싶으나 현지 개척교회 지원 사항을 생각하며 사먹지 못하고 그런 돈을 모아 개척교회 창문도 달고 우물도 파주고 하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듣고 회개와 부끄럼움과 가슴 뭉클함을 느끼고 주님께 죄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0 이번 스리랑카 선교를 마치고 북쪽 타밀족 와우니아 지역은 복음전파가 열려있으므로 이럴 때 열심히 복음전파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0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때까지 선교사라는 구호를 외치면 돌아오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 0 다시 한 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아멘.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9년 내전종식으로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온 산지는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영적 황폐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에 복음의 계절이 온 것 같이 머지않은 장래에 스리랑카에도 우상의 산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목도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1997년부터 외국인 선교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현지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역현장을 돌아보며 작은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로, 혹은 신학생으로 섬기는 귀중한 헌신자들을 바라보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역자들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며 외형적인 건물은 보잘 것 없지만 성도들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했다,
바라기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이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적무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협력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와우니아(타밀지역)-강기엽 협력선교사부부

광활한 지역교회(28개)를 돌보는 일에 선교의 발이 될 자동차가 필요하다

2,켄디(싱할라지역) - 윤해균 협력선교사부부

현지사역자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영적인것, 물질적인것)을 지원하는데 헌신된 동역자가 필요하다

3,웰리마다(싱할라지역)-가미니 협력선교사부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채워지도록 기도가 필요함

4,다음세대를 위한 현지인 신학생(사거리)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5,현지사역자들이 이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적무장과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현지인 사역자를 위한 교역자세미나를 현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

-성도들의 예배와 헌신을 위해 특화된 단기선교팀 구성(어린이, 의료사역, 교회보수)이 필요

-현지교회가 든든히 서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번 사역을 통하여 보고 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